

서양의학 의사 方合信의 한의학 재발견과 수용: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본 몇 가지 의문점

Daeyeol KIM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INALCO, Paris)

AKSE 2017 Prague

Daeyeol KIM (INALCO, Paris), AKSE 2017 Prague

方合信 (?-?)

- 黃海道 信川邑 濟世醫院 院長
- In western medicine since 15 years
- Born in 1896 ?
- Graduated from Severance in 1916

방합신 관련 자료

- 漢方醫學(特히 古方) 就하야 (제 7호, 1926년 6월 27일)
- 漢方醫學(特히 古方) 就하야 (續)(제9호, 1928년 3월 15일)
- 漢方에 對한 蛇類의 醫治的 應用에 就하야 (제 11호, 1929년 4월 26일)

- 여인석 (2007). 「한말과 식민지 시기 서양의학의 한의학 인식과 수용」. 『醫史學』 16(2), 161-176.

THE
SEVERANCE BULLETIN

Seoul Korea

No. 7 March 1926

大正十五年六月二十五日

印刷發行

【非賣品】

世富蘭德校友會報

朝鮮京城

第七號

漢方醫學(特히 古方) 就하야 (1926년)

第一編 序論

- (其一) 頭言
- (其二) 本論
 - 第一章 現代醫界에 對한 余의 所感
 - (1) 著者와 醫學
 - (2) 現代醫學의 效果
 - (3) 醫學의 最大目的
 - (4) 現代醫學의 缺陷
 - 第二章 漢方醫門에 入한 余의 動機
 - (1) 著者의 醫學的步調
 - (2) 著者의 決心
 - (3) 漢方에 對한 余의 難觀
 - (4) 著者의 希望
 - 第三章 著者의 漢方觀
 - (1) 漢方의 治療的價値
 - (2) 著者의 主張

漢方醫學(특히 古方) 就하야 (續)(1928년)

第二編 總論

- 第一章
- 第二章 漢方の 病理概論
 - (1) 漢方の 基礎醫學不備는 事實
 - (2) 漢方은 忘誕醫學乎
 - 病理概論 其一 (後世方に 病理說)
 - 病理概論 其二 (古方に 病理說)
 - (1) 病原論
 - (2) 萬病一毒說에 就하여
 - (3) 現代醫學에 病理說
 - (4) 治療法の 發達은 病原發見과 一致치 안음

漢方에 對한 蛇類의 醫治的 應用에 就하야 (1929)

- 序言
- (1) 內科的 疾患에 應用하는 例
 - (A) 興奮滋養強壯 劃로 使用함
 - (B) 組織間에 沈伏한 病毒을 昇浮發越 目的으로 使用
 - (C) 動物質 缺乏性 疾患에 使用함
- (2) 外科的 疾患에 應用하는 例
- 第二章 各論
- (A) 白蛇 或은 白花蛇 (White snake)
- (B) 烏蛇 (Black snake)
- (C) 復蛇 一名 反鼻蛇 (Viper)

서양 의학의 한계

- 內因에 대한 이론 부족
- 處方이 病原 發見과 일치하지 않음
- “故로 經驗上 病原 發見으로서 반다시 其病에 對한 治療方法을 確立하는 者 아인 것은 更論할 必要가 無하거든 하물며 吾人이 其病原에 對한 識見 僅히 其半面(外因)을 知함에 不過한 者리오?”

한의학과 서양 의학의 관계

- 한의학 = 내과
- 서양 의학 = 외과
- “故로 萬一 最後에 一言으로서 結論을 强要할진댄 恐컨대 今日에 醫學 程度에 在하야난 漢方은 特히 內科的 方面에서 其 治療的 價値 著히 優越하다 思하노니 要컨대 余는 漢方을 內科醫學, 洋方은 外科醫學이라 命名함이 至當할가 하노라. 然而 吾人이 共認하난 바 外科的 疾患과 內科的 疾病은 互相密接한 關係를 有한 者인 故로 萬一 其 發病 初期에서 內科的 治療가 充分할 時난 勿論 手術台上 利刀下에 流血割腹에 慘酷한 光景 及 犧牲의 悲幕 著減한 것은 實노 明曉한 事實이다.”

한의학과 서양 의학의 관계

	Strong point	Weak point
Western medicine	Advanced etiology	Lack of remedy for diathesis
Chinese medicine	Better remedial effect	Weak in etiology

方合信이 본 漢醫學

- “眞正한 漢方 卽 古方”
- “中古의 漢方 卽 後世方 (陰陽醫學 或 金元方)”
 - “現今 我邦에 流行되는 漢方은 全히 基本源地인 支那로부터 傳來한 純然한 中古醫學 卽 後世方이다”.
- ”現代의 漢方 혹은 復古醫學”
 - 古方學派
 - 吉益東洞 (よしますとうどう, 1702–1773)
- 그 이후로는 서양의학이 밀려와 의학계를 독점

方合信이 본 漢醫學

- 和田啓十郎 (1872-1916)와 盪本求真
- 서양의학 = 皮相的, 客觀的, 局部的, 非綜合的이고
- 한방은 = 深達的, 本源的, 綜合的
- “余亦多年間懸念中彷徨하던 漢方に 對하여 幸히 右兩氏 及 東洞 著書 또는 仲景全書에 依하여 僅히 其入門에 路에 立한 同時에 其一波에 應에 當키 爲하여 一吠를 敢行코저하오니...”

朝鮮 後期 漢醫學

- 星浩學派의 儒醫들의 古學과 本草
 - 丁若鏞
 - 五運六氣 비판, 傷寒論 소개, 本草學 강조.
- 業醫들의 古方과 傷寒論
 - 李壽祺 (1664-?)의 『歷試漫筆』 (1734)
 - “古方”과 “證驗”
 - 李顯養 (1783~1852)의 『谷靑私藁』
 - 傷寒論

方合信 以前の 東西醫學 運動

- 1908년 東西醫學講習所 설립
- 1916년 東西醫學報 창간
 - 漢醫學 = ‘病理學’, ‘診斷學’, ‘藥物學’, ‘外科學’, ‘傷寒學’
- 1917년 東西醫學研究會 설립
- 1923년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창간
- 1924년 『東西醫學要義』 출판

방합신과 한국 한의학 전통의 관계

- 과연 서양 과학과 한국 전통 학문과의 만남인가?
 - 서양의학에 대한 한의학의 반응
 - 그러나, 한의학의 한국적 전개가 생략됨.
- 방합신의 사회적 배경은 ?
 - 중인 의관 혹은 역관 가문?
 - 아니면 어느 사회 계층 ?

서양 의학과와의 만남 +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상황 =

